

흔들려도 4개월간 '1위 수성' NC의 힘은?

5월 이후 줄곧 선두...지난달 11승12패로 '주춤'
지난 13일 게임차 없어도...가까스로 1위

가센 위협에도 끄떡없다. 단독 선두를 유지하는 NC 다이노스가 내친김에 '1위 굳히기'까지 노린다.

NC는 21일까지 65승3무42패 승률 0.607로 1위에 올라있다.

10개 구단 중 승률 6할을 넘는 건 NC가 유일하다.

올 시즌 NC를 누르고 올라선 팀은 없다. NC는 지난 5월13일 1위에 오른 후 단 한 번도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위기가 없던 것은 아니다.

5월 한 달간 18승5패(승률 0.783)로 패조의 스타트를 끊은 NC는 6월(14승10패)과 7월(13승2무7패)에도 순항을 이어갔지만, 8월 11승12패(승률 0.478)로 주춤했다.

그러면서 멀찍이 벌어진 2위 그룹과의 격차도 확 줄었다.

특히 8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그린 키움의 추격은 매서웠다.

지난 13일에는 NC가 KIA 타이거즈에 3-4로 패하고, 키움 히어로즈가 두

산 베어스와 6-6으로 비기면서 1위 NC와 2위 키움의 게임 차가 없어지기도 했다.

당시 NC(60승3무40패 승률 0.600)는 키움(65승1무45패 승률 0.591)을 간신히 앞섰다. 하지만 NC가 1위를 빼앗기는 일은 없었다.

이후 NC는 15일부터 20일까지 5승2패를 거두며 다시 힘을 냈다.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NC는 이 기간 2승4패에 머무른 2위 키움을 2.5게임 차로 다시 밀어냈다.

NC의 가장 강력한 힘은 화끈한 타선이다. 팀 타율 2위(0.291), 팀 홈런 1위(143개)의 타선은 실재 없이 터진다. 중심을 잡아주는 양의지는 물론이고 '공포의 8번타자'로 활약하는 애런 알테어의 방망이도 뜨겁다.

박민우는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0.450(40타수 18안타)을 때려낸 만큼 압도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전까지 '약점'으로 취급됐던 불펜이 무기로 바뀌었다는 점도 눈에 띄게



만하다. 8월 말까지만 해도 NC의 구원진 평균자책점은 5.65로 10개 구단 중 9위에 그쳤다.

하지만 9월 이후 NC 불펜은 평균자책점 2.63으로 1위에 올라왔다. 선발이 초반 흔들려도, 불펜의 뒷심으로 알테어의 방망이도 뜨겁다.

지난 20일 롯데와 더블헤더 2차전에서 선발 박진우가 2%이닝 2실점으로 몰려나 뒤 7명의 투수가 연달아 나와 남은 6%이닝을 무실점으로 합작하고 6-2 승리를 따내기도 했다.

100%의 전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NC의 1위 지키기는 더욱 돋보인다.

마운드에서는 에이스 구창모, 타선에서는 거포 나성범이 부상으로 이탈해있다. 투타 주축인 이들의 빈 자리는 큰 고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남은 선수들이 힘을 합쳐 이들의 공백을 지워내고 있다.

구창모와 나성범이 돌아온다면 NC는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다. 지금의 흐름만 유지해도,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손흥민 BBC 이 주의 '베스트 11' 선정

손흥민이 영국 BBC가 뽑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이주의 팀에 이름을 올렸다.

BBC는 22일(한국시간) 이주의 팀을 선정하면서 손흥민을 사디오 마네(리버풀), 도미니크 칼버트-르윈(에버턴)과 함께 3-4-3 포메이션의 공격수로 낙점했다.

예견된 결과다. 손흥민은 20일 사우샘프턴전에서 혼자서 4골을 몰아넣으며 토트넘의 5-2 역전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이 한 경기에서 4골을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트트릭 역시 2015-2016시즌 EPL 입성 후 최하다.

각종 매체로부터 평점 10을 찍었던 손흥민은 BBC 이주의 팀이라는 영예까지 안았다.

4도움을 기록했던 팀 동료 해리 케인은 빠졌다. 베스트 11의 토트넘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올 시즌부터 EPL에서 뛰는 하메스 로드리게스(에버턴)와 맨체스터 시티 핵심 미드필더 케빈 데 브라이너 등이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순천여고,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금·은·동 수확 '꽤'

단식우승 김운진, 결승서 4대 0으로 완파

전남 순천여자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팀이 전국소프트테니스선수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각각 1개씩 수확했다.

전남도체육회는 21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2020년 전국소프트테니스종별선수권대회에서 순천여고 김운진(3년)이 단식 우승, 김여빈(1년)이 단식 동메달, 박빛나(3년)·김하은(3년)조가 복식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밝혔다.

단식 우승을 차지한 김운진은 8강에서 김예림(서울)을 만나 4대 2

로 승리를 거둔 뒤 준결승에서 팀 후배 김여빈을 4대 1로 몰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이어 결승에서 강민서(부산)를 4대 0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복식에 출전한 박빛나·김하은 조는 결승에서 임진아·김혜진(대전) 조를 만나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 4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100회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싹쓸이 했던 순천여고는 지난날 열린 올



전남도체육회는 21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2020년 전국소프트테니스종별선수권대회에서 순천여자고등학교가 금·은·동을 수확했다고 밝혔다.

시즌 첫 대회 제58회 대동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금메달 1개

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MLB 오كل랜드, 7년 만에 AL 서부지구 우승

경기 없는 날 휴스턴 패배로 우승 확정



메이저리그(MLB) 오كل랜드 애슬레틱스가 7년 만에 아메리칸리그(AL)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했다.

33승 20패로 AL 서부지구 선두를 질주 중이던 오كل랜드는 22일(한국시간) 경기 없는 휴식일이었다.

그러나 이날 지구 2위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시애틀 매리너스에 1-6으로 패배하면서 27승 27패를 기록했고, 휴스턴에 6.5경기 차로 앞서게 된 오كل랜드는 남은 7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지구 우승을 확정지었다.

오كل랜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팀당 60경기의 '초미니 시즌'을 치르는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먼저 지구 우승을 확정했다.

오클랜드가 지구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

에 따르면 오클랜드가 6경기 이상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구 우승을 확정짓는 것은 1990년 이후 30년 만이다.

23일부터 LA 다저스와 원정 3연전을 치르는 오클랜드는 23일 경기에 앞서 조출하게 지구 우승 자

축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MLB 사무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삼폐인 샤워'를 금지한 바 있다.

오클랜드 지구 우승의 가장 큰 원동력은 탄탄한 불펜이었다. 올 시즌 오클랜드는 팀 평균자책점 3.64로 메이저리그 전체 6위를 달리고 있다. 선발 평균자책점은 4.47로 15위에 머물러있는 반면 불펜 평균자책점은 2.42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1위다.

마무리 투수 리암 헨드릭스가 3승 무패 13세이브 평균자책점 1.23으로 든든히 뒷문을 지키는 가운데 유스메이로 패티트, J.B 웰켄, 호아킨 소리아 등이 필승조를 이루고 있다.

아메리칸리그 승률 3위인 오클랜드는 남은 시즌 동안 포스트시즌 1번 시드 자리를 놓고 동부지구 1위 탬파베이 레이스(36승 19패), 중부지구 1위 시카고 화이트삭스(34승 20패)와 경쟁할 전망이다.

벤투호-김학범호, 내달 9일·12일 두 차례 대결

기부금 1억 걸고 'A 대표팀 vs U-23 대표팀' 친선경기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A 대표팀과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10월 두 차례 친선경기를 갖는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A 대표팀과 U-23 대표팀의 경기를 오는 10월9일과 12일에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 두 경기 모두 오후 8시에 Kick-off 한다"고 전했다.

대회 공식 명칭은 '2020 남자축구대표팀vs올림픽대표팀 친선경기'다.

단순 친선경기를 넘어 '기부금 생활전'이라는 콘셉트로 흥미를 더했다.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승리하는 쪽 이름으로 기부금 1억원을 걸었다.

승자 결정은 홈팬더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 뒤, 합산 스코어를 기

준으로 한다. 합산 스코어가 같을 경우 원정골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1차전은 A대표팀이 홈 유니폼을 입고, 2차전은 U-23 대표팀이 홈 유니폼을 착용한다.

당초 두 팀의 대결은 9월로 예정됐으나 국제축구연맹(FIFA)이 코로나19로 인해 9월 A매치 기간을 내년 1월로 변경하면서 연기됐다.

10월 A매치 기간에는 원래 2022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내년으로 연기됐다.

벤투호와 김학범호는 각각 지난해 12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과 올해 초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이후 모이지 못했다.

두 감독은 그동안 K리그 경기 관전으로 선수단 점령을 대신했다. 이번

친선경기를 통해 직접 선수들의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단, 코로나19로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관계로 해외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는 소집하지 않는다.

그래도 K리그에서 뛰고 있는 핵심 선수들이 많이 앞장 스쿼드 구성이 가능하다.

벤투호에는 나상호(성남), 정승현, 조현우(이상 울산) 등 주전급 선수들이 합류할 수 있다. 김학범호에도 오세훈(상주), 김대원(대구), 엄원상(광주) 등이 팀 내 주전으로 자리매김했다.

양 팀의 소집 명단은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협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기장에 입장하는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을 기할 방침이다.

선수단 및 운영인력은 사전에 지정된 인원만 경기장 출입이 가능하고, 경기장에 입장하는 전원을 대상으로 QR코드 및 발열체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지 않는 한 무관중 경기로 진행할 방침도 세웠다.

홍명보 협회 전무는 "올해 초 발표한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국가대표팀 경기가 연례대를 포함해 한 번도 없었다"며 "대표팀 경기에 대한 축구팬의 감흥을 해소하고, 한국 축구와 대표팀이 견재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번 경기를 기획했다."

K리그1 울산-전북, 내달 25일 '격돌'

울산 현대의 15년만의 정상 탈환이냐, 전북 현대의 사상 첫 리그 4연패냐.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파이널 라운드 일정이 확정됐다.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울산과 전북은 10월25일 26라운드에서 대결한다. 우승 향방의 중요한 일정이 될 전망이다.

프로축구연맹은 22일 하나원큐 K리그1 2020의 파이널 라운드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규 22라운드까지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1-6위는 파이널A, 7-12위는 파이널B에서 일정을 이어간다.

선두 울산을 비롯해 전북, 포항 스틸러스, 상주 상무, 대구FC 그리고 승격팀 광주FC가 파이널A에서 대결한다.

파이널B에는 전통의 명가 FC서울과 수원 삼성을 포함해 강원FC, 성남FC, 부산 아이파크, 인천 유나이티드가 속했다.

파이널A에선 우승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위해서, 파이널B에서 K리그1 잔류를 위해서 경쟁한다.

오는 26-27일 23라운드를 시작으로 최종 27라운드는 10월31일과 11월1일에 열린다. 팀당 5경기를 치르게 된다.

울산과 전북의 대결이 큰 관심을 모은다.

강진군청 신동인, 전국사이클대회 3관왕

대회신기록 작성

강진군청 신동인 선수가 전국사이클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는 강진군청의 신동인 선수가 강원도 양양 벨로드롬에서 열린 8-15경주 2020 양양 전국사이클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동인 선수는 황범연, 배승빈, 안희상 선수와 조를 이뤄 출전한 단체추발 4km에서 4분08초036의 기록으로 대회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는 서울시청의 종전 기록 4분09초976의 기록을 1초 이상 앞당겼다. 이어 유니폼에 출전한 신동인 선수

는 스크래치 10km와 포인트 24km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해 대회 3관왕을 달성했다.

이 밖에도 신 동인 선수는 유니폼 스크래치 10km와 체외경기에서 은메달을 각각 추가하고 안희상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춘 메디슨 40km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신 동인 선수의 활약속에 강진군청 사이클팀은 양양군청에 이어 남자일반부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정점식 코치는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았다.

또 나주시청 사이클팀의 황예은 선수도 여자일반부에 출전해 스크래치 7.5km 금메달과 단체스프린트 은메달을 획득했다.

강진=김영일기자